

식음료 포장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두산제관(주)

국내 최초로 가볍고 편리한 알루미늄 투피스 캔을 생산하여 국내포장용기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연 두산제관(주)은 연간 15억개 이상의 음료용 투피스캔 및 쓰리피스캔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빈 알루미늄캔의 수거를 위한 리사이클링 캠페인 활동으로 포장용기에 의한 자연훼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캔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하고 있다.

두산제관(주)이 생산하는 투피스캔의 생산자적 측면에서의 장점은 고속대량생산으로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하다는 것과 파손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운송이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시에는 진열이 손쉽고 디자인과 칼라가 다양해 소비자의 눈에 손쉽게 띄며 음료의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간편하고 빨리 냉각되며 쉽게 개봉할 수 있다는 것과 무게가 가벼워 운반이 편리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두산제관(주)의 쓰리피스 캔은 인쇄상태가 섬세하고 선명해 제품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며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P.L.C에 의한 정교한 Welding 시스템과 고압 Air Inspecting 시스템 등의 첨단기술로 제조하기 때문에 더욱 우수한 품질을 보증한다. 또한 엄격하게 선별된 최상의 표준 금속사용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락카시스템으로 내용물의 맛을 언제나 신선하게 장기간 보존시켜주며 최신자동화 설비와 Technical Team에 의해 고속대량 생산하므로 고품질의 캔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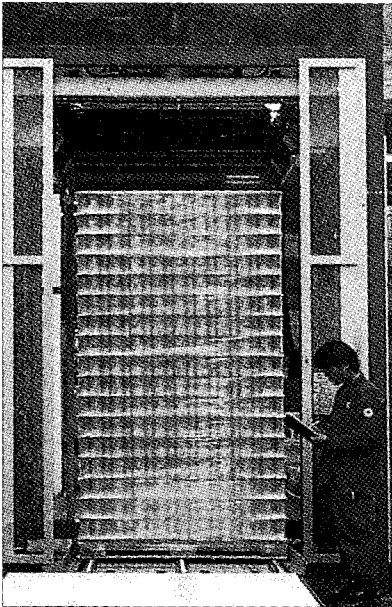
1986년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화이트 캡' 제조기술을 국내에 도입해 동남아 등지에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한 용기에 담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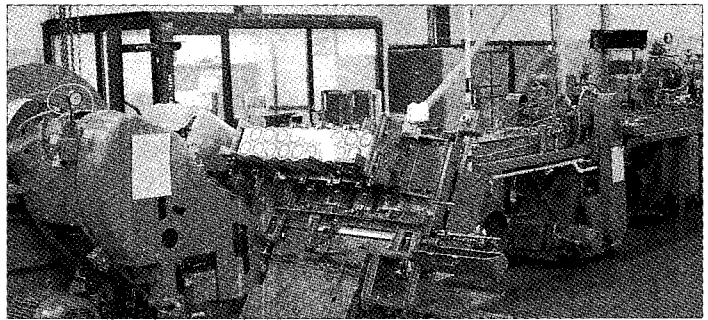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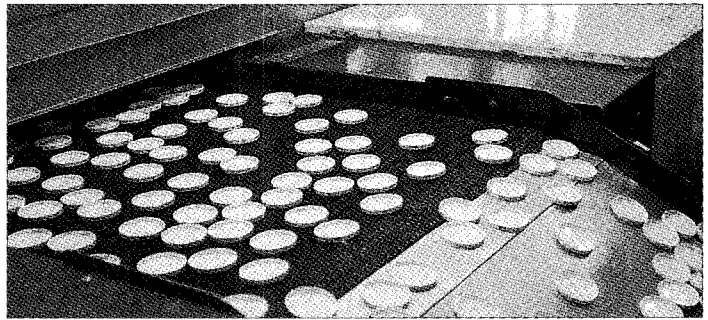
▲ 두산제관(주)의 3-Piece Can



▲ 두산제관(주)이 생산하는 '화이트 캡'



▲ Wrapping M/C
-완성된 Pallet를 포장하는 설비.



음료를 즐길 수 있는 STAY-ON-TAP 방식의 뚜껑을 부착한 최신의 캔을 개발하는 등 더욱 편리한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노력하고 있다. 두산제관(주)에서 생산하는 '화이트 캡'의 버튼 구조는 불량품 및 개폐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표시 기능을 하고 FDA의 공인을 받은 재료만을 사용하므로 고진공도를 유지시켜, 어떤 식품이라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장기간 보존시켜 준다.

병구와 캡의 Compound의 우수한 밀착성으로 재밀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개폐가 용이하다.

화이트 캡은 석도강판에 코팅처리를 해 상표를 인쇄한 다음 절단공정을 거쳐 셀 형태로 만든 다음 컬링을 해서 Lug을 만들어 준다. 병과의 접촉부분에 밀폐용 플라스틱을 분사한 후 건조시킴으로써 용기의 진공상태를 가능케 하는

화이트캡이 완성된다.

두산제관(주)은 제품의 무결점을 목표로 철저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해 품질보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종 정밀검사 및 자동공정 검사 장치 등 최신장비에 의한 철저한 검사를 거치게 된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고도의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불량 및 공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배제시키고 있으며 CTS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과 관련된 제반기술들을 제공·지원하고 있다.

소수의 불량이라도 신속히 조치하며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산제관(주)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알루미늄캔의 재활용으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포장용기의 새 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ko]